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물적 모티브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the Animal Motif Found in Modern Fashion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부교수 김 선 영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Sun Young Kim

목 차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이론적 배경 | References |
| III.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물적 모티브의 특성 | |

Abstract

This study looked into the trend of expression of animal motifs that appears in modern fashion, and the values embedded in them. As to the research method,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works presented at the four global collections of Paris, Milan, New York and London from 2001S/S to 2010F/W, as well as a literature review. As a result, animal motifs applied in modern fashion appeared in material groups, such as leather or feather. The first group shows a realistic material feel, with artificial leather or fur, expressed in a transformed complex animal motif, with process skill or various methods of expression. The second group is the case of a single motif or reality, mode, and abstraction pattern. Printing is a generic expression, but patchwork, collage or bead ornament are also used, and expressed in the various forms of pattern: pattern in a single animal, pattern in different animals, and pattern combining both animal and other shape. The third group is a small decorative ornament, including headset or accessory and makeup, which is transformed in an animal-characterized motif into part of clothing components for expression, or to set the real animal to the stage for a performance. The embedded values were also categorized as natural beauty, sensual female beauty, pleasure, and ornamentation, which could be an endless spiritual source, and a breakthrough that enables us to show a creative and new aesthetic for the modern fashion field.

주제어 (Keywords) : 동물적 모티브 (animal motif), 자연성 (naturalness), 관능성 (sensuality), 유희성 (pleasure), 장식성 (ornamentation)

Corresponding Author : Sun Young Kim,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255 Jungangno, Suncheon, Chonnam, 540-742, Korea Tel: +82-61-750-3685 Fax: +82-61-750-3680 E-mail: ksy6341@sunchon.ac.kr

* 본 논문은 2012년 대한가정학회 제65차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임.

I. 서론

자연은 인간에게 끊임없는 감동을 주며, 인간은 그 감동을 다양한 예술의 형식을 통해 구체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예술에 있어 자연은 그대로 복사되는 재현이 아니라 주관에 의해 다시 구성되는 표현으로서의 새로운 대상으로 존재하게 된다(Cho, 2005). 영국의 비평가이며 사상가인 Ruskin은 “자연형태에서 기인하지 않은 디자인은 결코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 없다(Lee, 1986).”고 하여 자연물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수많은 자연물 중 동물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며 실생활 속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징적 의미로 표현되어져 왔다. 특히 인간의 의생활과 관련하여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물은 소재, 문양, 색상, 스타일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다양한 패션의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패션과 관련하여 동물에 관한 선행연구(Cho, 1985; J-H. Cho, 2009; Jung, 1997; Kim, 2005; R-H. Kim, 2009; Y-J. Lee, 2006; J-E. Park, 2009)는 동물문양의 상징에 관한 연구나 전통복식 및 직물에 나타난 문양연구, 텍스타일 디자인 관련 연구에서 자연적 모티브나 사실적 모티브의 하나로 간략하게 언급되어질 뿐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물적 모티브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실생활 속에서 뿐만 아니라 의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물과의 관계를 모색함에 있어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물적 모티브들의 표현경향과 그 안에 내재된 내재가치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 이를 통해 모든 영역간의 장르와 경계 초월을 통해 보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현대패션에 있어 동물적 모티브가 독창적인 디자인 전개를 위한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동물에 관한 개념과 상징, 활용사례 등을 고찰하고, 현대패션에 표현된 동물적 모티브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2010S/S부터 2010F/W까지의 세계 4대 컬렉션인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외 컬렉션 지 및 인터넷 패션쇼 사이트를 참고로 하였다. 그리고 현대패션과 관련된 본 연구에서 동물적 모티브의 의미는 외적형태로서 동물의 가죽이나 깃털을 의복이나 장식적인 소품의 소재로 활용한 것, 그리고 동물의 형상이나 특징적인 요소를 사실적이거나 양식화, 추상화하여 하나의 문양으로 활용한 것으로 한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동물의 개념과 상징

동물은 동물계로 분류되는 생물의 총칭으로 엽록소를 갖지

않고, 세포벽을 갖지 않으며, 몸속에 여러 기관이 있는 생물 중 다세포인 것을 말한다(Animal 1, 2011, September 15). 현재 100만~120만 종이 알려져 있고, 원생동물부터 척추동물까지 23개의 문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운동능력과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제외한 길짐승, 날짐승, 물짐승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Animal 2, 2011, September 15).

동물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다양한 상징적 의미와 체계를 이루어왔다. 동물은 주술적 신앙의 대상이나 신화에서 신을 상징하는 신성한 존재나 토템의 대상으로 상징되는 등 인간과 결부되어 끊임없는 관계를 형성하여 나타나는데, 이러한 동물들은 민족과 시대, 지역, 종교에 따라 그 의미와 표현방법이 다르게 나타나기도(Kim, 2005) 한다.

한 예로 유교와 불교 문화권에서 용문은 군왕과 왕실의 위엄·용장함을 상징하고, 박쥐문은 행복과 장수·자손 번창을, 공작문은 위엄과 아름다움을, 호랑이는 무와 용감함의 상징으로 사용되며, 봉황문은 상상의 동물로 왕실의 존엄과 덕·다산을 의미하고, 학문은 장수와 선비의 청백한 기상, 기러기문은 신의와 믿음, 기린문은 상서로운 징조, 사슴문은 장수와 부·선과 평화, 거북문은 장수와 신선사상, 원앙 문은 다정한 부부애를 상징한다. 반면 기독교 문화권에서 용문은 악마를, 박쥐문은 불행을 상징한다. 공작문은 영원한 생명과 불멸, 사자문은 남성적 용맹성과 무인, 독수리문은 예수의 승천·성령·힘, 비둘기문은 평화와 성령이 주시는 은총·지혜, 뱀 문은 지혜·죄악·간교, 양문은 그리스도·순결·인내·겸손을 상징한다(Y-J. Lee, 2006).

다양한 동물적 상징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종교나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데, 각종 재앙을 막아주는 벽사적인 동물, 신을 불러오는 길상적인 동물 등 민간 신앙적 성격의 것에서부터 애완동물이나 장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I-S. Park, 2009). 이러한 표현은 인간의 장식적인 욕구의 표현뿐만 아니라 종교적이면서도 주술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인간에게 동물의 존재는 식생활과 의류 및 생활 용구 등의 공급에 있어서 필수적이었고, 예술적으로 표현된 동물은 구상 또는 추상적인 상상력으로 표현되었다. 약 2만 년 전 크로마농인이 동굴 벽에 남긴 그림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최초의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그림은 주로 사냥과 관련된 다양한 동물그림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동물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주술적인 염원과 상징적 의미로서 동물을 인식해 왔음을 확인하게 한다(Kim, 2005). 예로부터 인간은 다양한 동물의 힘이나 진귀함 등 신비한 능력을 지닌 존재로 여겨 각종 동물 문양들을 단순한 장식을 위한 용도로 사용함과 동시에 주술적인 상징의미를 지닌 조형의식의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바위그림이나 동굴벽화를 비롯하여 토우와 토기, 고분벽화 등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이들 동물상징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세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생활의 일부분을 표현하고 있다(Symbolism of animal folklore, 2011, September 15)고 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동물의 상징의 유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숭배와 수호의 대상으로서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동물이 가진 강한 힘과 거대함은 그 동물이 주는 재해나 위험 등에 대하여 공포감과 범상하지 않는 경외심을 느끼게 한다(M-S. Cho, 2009). 이러한 심리적 동기가 무서운 존재에서 숭배의 대상 또는 수호신으로까지 인식하게 된다 하겠다.

다음으로 신비로운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의 상징이다. 동물은 재생과 변형의 신비적인 능력과 미래를 미리 예견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이러한 능력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재생, 신의 전달자 혹은 중계자로서 보다 높은 신령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대부분 동물들의 감각은 인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미래의 일이나 자연현상을 미리 알아서 예조를 보이게 되는데, 많은 역사기록을 통해서도 나라의 흥망, 기후의 변화, 현군과 성현의 생몰, 국가대사 성패 등을 미리 알려주는 등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Symbolism of animal folklore, 2011, September 15). 즉 동물들의 초자연적 능력에 대한 관념은 동물숭배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성적인 존재로의 상징 유형이다. 동물을 성스러운 존재로 간주하여 이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숭배하는 관념과 신앙행위들이 민속신앙을 통해 오래 전부터 전승되어 오고 있는데, 이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외형, 행태, 능력 등이 인간 이상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하늘을 날고, 땅에 걸고, 물에서 헤엄치는 이른바 각 동물상징의 생태적 다양성과 이종성으로 속계와 영계를 드나드는 영매(靈媒) 또는 신의 사자(使者)로 인식된다. 이에 따라 동물은 제의나 주술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 신성성이 부여되기도 하고, 동물의 다산과 관련하여 풍요의 신, 재물신 등으로 상징되기도 한다. 또한 동물에 대한 애정이나 식료 및 노동력 제공에 대한 예우는 동물숭배뿐만 아니라 친밀성을 부여하여 감사의 대상으로 존재하게 한다(Symbolism of animal folklore, 2011, September 15)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물은 인간 생활 속에서 현실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깊숙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동물상징은 그 의미 속에 주술성, 초자연성, 신성성과 같은 신비로움을 내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기반으로 현대패션과 관련된 본 연구에서 동물적 모티브의 의미는 동물

이 지닌 내적 상징성의 의미와 함께 외적형태로서 동물의 가죽이나 깃털을 의복이나 장식적인 소품의 소재로 활용한 것, 그리고 동물의 형상이나 특징적인 요소를 사실적이거나 양식화, 추상화하여 하나의 문양으로 활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진행하였다.

2. 동물적 모티브의 활용사례

동물은 인간과 친밀한 존재라는 의미 외에 숭배와 수호의 대상이며, 초자연적인 능력 및 예지 능력, 영적 매개체로서 신의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동양의 많은 민속예술이 벽사적인 성향을 갖는다면 서양미술사를 차지하는 동물조각가들의 작품은 길상적인 동물을 대표하며, 또 현대미술에서 동물은 많은 작가의 감성세계를 조형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조형수단으로(I-S. Park, 2009) 나타나기도 한다.

미술 분야 외에도 특정 동물을 이용하여 기업이나 도시, 국가이미지에 반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예는 그 동물과의 친밀감을 넘어 집단과 역사적으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 특정동물을 상징화하여 그 동물이 가지는 힘, 민첩함, 행동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M-S. Cho, 2009).

유럽 국가문장의 경우 전통적으로 독수리와 사자의 형상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강력한 왕권의 상징이자 자국민족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국권 향상 및 국민 통합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독수리는 조류의 왕으로 용맹하고 과감한 기지를 지니고 있으며, 기원전 3000년경부터 메소포타미아의 전장기와 인장 등에 새겨졌다. 신성로마제국의 문장으로 유명한 쌍두 독수리는 동서 로마제국의 통합이라는 의미를 담아 황제가 이용하는 등 신성로마제국은 독수리 상징을 대대로 계승하였다. 사자는 영국과 스코틀랜드 왕가의 문장으로도 널리 알려졌는데, 리처드 1세가 1195년 문장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영국 외에도 벨기에, 핀란드, 네덜란드 등의 나라로 확산되면서 국가문장으로 채택되었다(Takashi, 2004)

독일 자동차메이커인 Porsche는 말 사육으로 유명한 독일 Stuttgart시의 문장을 차용했는데, 앞발을 든 검은 말은 야성과 질주의 이미지로 Porsche의 품질과 오랜 역사를 각인시켰다. 프랑스 자동차 Peugeot 역시 공장이 설립된 Belfort시의 수호동물을 차용하여 사용하였고, 스웨덴의 자동차 Saab 역시 상반신은 독수리이고 하반신은 사자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동물 Griffin이다. 이탈리아 베니스의 상징동물은 성경 이야기인 '성 마르코와 사자'에서 유래한 날개달린 사자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심벌이기도 하다.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있는 Merlion은 얼굴은 사자고 몸은 물고기인 신화동물로 싱가포르의 상징이기도 하다(M-S. Cho, 2009). 이외에도 외국 정

부부처의 아이덴티티나 각 지자체의 상징동물로 채택되어 캐릭터화 함으로써 다양하게 활용되기도 한다.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들 역시 상징적인 동물을 캐릭터화 하여 로고와 문양으로 이용함으로써 스포츠 정신을 상징화하기도 한다. 특히 스포츠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성격이 강화되면서 용맹하고 민첩한 이미지의 동물 로고와 함께 귀여운 이미지의 동물캐릭터 역시 주목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로 1933년 테니스 챔피언인 Rene Lacoste가 직접 디자인한 악어 로고를 사용한 Lacoste가 있다(W-K. Kim, 2010). 또 프랑스의 Le Coq Sportif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수탉을 상징적인 동물로 이용하고 있고, Jacknicklaus는 충실한 스포츠 정신과 역동적인 이미지를 상징하는 황금 곰을, Puma는 달리는 블랙 퓨마를 통해 대담함, 날쌘, 용맹성의 이미지를, Black&White는 블랙 고양이와 화이트 개로 인내와 행운을 상징을, Greenjoy는 충성, 인내, 지혜, 장수를 상징하는 코끼리를, Wolsey는 황금 여우, Lyle&Scott는 비상하는 황금 독수리, Mungshinwear는 펭귄, MU Sports, Adabat는 개를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정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특징을 브랜드의 심벌이나 로고로 사용하는 것은 브랜드의 콘셉트를 강조하

고, 또 스포츠의 강인한 정신과 역동적인 힘을 상징하는(M-G. Lee, 2006)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II.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물적 모티브의 특성

1.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물적 모티브의 표현경향

현대패션에 표현된 동물적 모티브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2001S/S부터 2010F/W까지의 세계 4대 컬렉션인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국내외 컬렉션지 및 인터넷 패션쇼 사이트를 참고로 하였다. 작품선정에 있어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 어류 등 다양한 동물의 종류를 포함하였고, 곤충류는 제외하였다. 수집된 총 413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동물적 모티브의 표현은 동물의 가죽이나 깃털을 소재로 활용한 경우, 텍스타일 디자인에 있어 하나의 모티브나 문양으로 활용한 경우, 헤드장식이나 액세서리, 메이크업 등 장식적인 소품에 활용한 경우로 구분되었다.

1) 소재로 활용한 경우

의복에 있어서 소재는 시각적, 촉각적 느낌을 전달할 뿐

Table 1.
Used as material

| | | | |
|---------------------------------|----------------------------------|-------------------------------|---------------------------|
| | | | |
| 1-1. Ungaro, 2002F/W | 1-2. Valentino, 2007F/W | 1-3. Dominique Sirop, 2005F/W | 1-4. Valentino, 2010S/S |
| | | | |
| 1-5. Alexander McQueen, 2008S/S | 1-6. Yves Saint Laurent, 2007F/W | 1-7. Chanel, 2010F/W | 1-8. Under Cover, 2007F/W |

(all at www.style.com)

아니라 실루엣 등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동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가죽이나 모피 소재를 직접적으로 활용한 경우 자연색 특유의 다채로운 색상과 질감의 효과로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게 되며 동시에 동물적 이미지를 강조하게 된다. 특히 염색과 가공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 연출, 표현기법에 따라 개성적인 디자인으로 전환된 소재는 동물적 모티브의 개념을 넘어 다양한 패션의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현대패션에 있어 사용된 동물소재는 표범, 여우, 밍크, 호랑이, 퓨마, 얼룩말, 뱀, 악어, 새의 깃털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종류가 나타났으며, 이들의 혼성적인 사용으로 독특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Table 1의 1-1은 부풀린 소매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모피를 혼합한 코트로 원시적인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고, 1-2는 코트의 상하에 서로 다른 종류의 모피를 배치하여 동물적 모티브를 강조함과 동시에 투피스와 같은 눈속임의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또 1-3과 같이 새의 깃털을 이용해 타이거 패턴을 연출하여 마치 모피와 같은 눈속임의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고, 재킷 전체에 색색의 새의 깃털로 콜라주한 1-4나, 1-5와 같이 원피스의 앞가슴부분에 독수리 양 날개를 엮어 놓은 형상으로 동물적 이미지와 혼성된 신체, 즉 반 조류의 이질적인 그로테스크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특히 다양한 텍스처 효과를 나타내는 소재개발을 통해 동물적 모티브의 강조와 독특한 재질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1-6과 같이 밍크 자체를 악어가죽의 표면처럼 깎아 마치 실제 악어가죽과 같은 패턴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여우가죽의 표면을 짧게 깎아 악어가죽 모양으로 레이저 커팅을 시도하는 등 특정 동물의 이미지는 가공기술과 염색 등을 통해 전환되거나 복합적인 동물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2007F/W의 경우 다양한 모피를 혼합하여 화려하고 대담







한 이미지를 연출한 디자인이 주를 이루었는데, Fendi는 최고급 친칠라를 실버 폭스, 페르시안 램과 믹스하거나 고트 퍼를 밍크와 믹스하고 과감한 볼륨, 디자인, 컬러로 고급스러움을 연출하였고, Christian Dior은 아스트라한과 폭스, 라쿤 등을 믹스한 코트 등 동물적 모티브를 강조함과 동시에 화려한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Kim, 2007, December 1). 또 실제 모피나 가죽, 깃털이 아닌 인조 모피, 가죽을 이용하여 동물적 모티브의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1-7은 실제 빙산을 연출한 무대와 함께 인조모피를 사용하여 모델을 마치 북극곰과 같은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고, 1-8은 니트로 짠 가짜 깃털로 만든 원피스이다. 이 외에도 Prada는 모헤어, 알파카, 셔틀 랜드 등의 울 소재로 만들어진 모피코트를, Malo는 니트를 말아 모피와 같은 이미지를 연출하는 (Shin, 2007, December 1) 등 다양한 가공기술과 표현기법을 통해 동물적 모티브의 특성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동물의 사실적 이미지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모피, 가죽, 깃털의 직접적인 사용, 그리고 다양한 기법과 가공기술로 표현되는 가공된 동물적 모티브의 소재 사용은 사용된 특정 동물의 모티브를 강조함과 동시에 장식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며, 또 동물이미지와 혼성된 신체를 통해 인간의 동물화, 동물의 의인화라는 상반된 아이러니를 나타내 인간 존재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2) 문양으로 활용한 경우

현대 텍스타일 디자인의 특징은 소비자가 갖고 있는 취향이나 자유로운 감성적 측면이 그대로 표현되어(J-E. Park, 2009) 나타남에 따라 과거에 비해 보다 다양하고 독특한 모티브가 활용되고 있으며 풍부한 색상과 함께 사실적인 문양에서부터 추상적인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나타난다고

Table 2. Utilization of reality patterns

| | | | | | |
|---|---|---|---|--|---|
|  |  |  |  |  |  |
| 2-1. Ann Demeulemeester, 2010S/S | 2-2. Salvatore Ferragamo, 2009S/S | 2-3. Pierrot, 2003S/S | 2-4. Dolce & Gabbana, 2005S/S | 2-5. Jean Paul Gaultier, 2007S/S | 2-6. Moschino, 2010S/S |

(all at www.style.com)

할 수 있다. 삼성디자인연구소에 따르면 텍스타일 사용에 있어서 고대부터 동물은 신비하고 상징적인 것으로 여겨져 동물문양은 동물이 가진 독특하고 특유한 형태를 똑같이 재현하던지 다른 소재에 표현한 것으로, 색시하면서 거칠고 고전적인 느낌을 연출하는데 효과적이라 하였다(Animal pattern, 2011, September 15). 특히 현대사회에서 있어 에콜로지의 영향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천연섬유, 중성색의 자연적인 색조, 동·식물프린트 등 자연적인 이미지의 문양, 자연스러운 실루엣 등을 선호하게 하여 동물문양이 더 자주 사용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물적 모티브의 활용에 있어 직접적인 소재의 활용과 함께 텍스타일 디자인의 문양으로 활용한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문양의 경우 사실형, 양식형, 추상형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표현기법 역시 프린트가 가장 일반적이나 자수, 비즈장식, 콜라주의 형태로도 표현되었고, 문양의 조합에 있어서는 특정 동물의 모티브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서로 다른 동물문양과의 혼성적인 사용, 또는 다른 문양과의 혼성적인 사용 등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났다.

Table 2의 2-1은 컬렉션에서 갈매기소리의 사운드 트랙과 함께 사실적인 갈매기 프린트와 블랙 앤 화이트, 지퍼 디테일로 고스 스타일을 연출한 Ann Delmeulemeester의 작품이고, 2-2는 사실적인 호랑이의 형상이 드레스와 일체되어 있는 것처럼 같은 톤의 색상으로 프린트되어 관능적인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2-3은 사실적인 호랑이의 프린트로 동물적 이미지와 함께 유희적인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실제 동물의 형상을 그대로 재현한 것과 같이 전체적인 모습을 프린트하여 나타나기도 하고, 2-4와 같이 뱀, 표범, 호랑이, 얼룩말 등의 특징적인 모티브를 사실적으로 프린트함으로써 동물적 모티브를 부각시켰다. 2003F/W에 컬렉션

전체를 얼룩말 문양을 이용해 선보인 Celine의 디자이너 Michael Kors는 “강렬한 동물 문양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환상을 일으키는 것이 요즘 패션의 두드러진 현상이며, 이러한 문양을 활용한 의상은 기존의 의상과 다양하게 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그 효과 역시 특별하다(Animal print, 2011, September 15).”고 하여 동물 문양의 유행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프린트 외에도 2-5와 같이 자수를 이용하거나, 2-6과 같이 오리의 형상을 깃털로 콜라주하여 사실적인 오리의 형상으로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Martin Margiela는 재킷 뒷면에 색색의 스트로를 콜라주하여 사실적인 호랑이 형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양식적 표현은 문양의 모티브를 실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동물의 문양을 단순화 시키거나 강조한 것으로 실제 모티브의 인상을 인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형의 변환 등을 시도하여 특징만을 살려 표현한 것이다(Lee, 2004). 양식적인 표현은 현대패션에서 동물적 모티브를 나타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양식으로 평면적이고 단순함을 주는 단점은 있으나 다양한 모티브의 크기조절이나 반복, 색상변화, 소재 등을 통해 변화감을 나타내는데 보다 용이하여 그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Table 3의 3-1과 같이 양식화된 표범문양에 컬러풀한 색상으로 변화를 주거나, 흑백의 얼룩말문양으로 옅티컬 한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고, 3-2와 같이 드레스 전면에 점진적 크기의 변화로 울동미뿐만 아니라 안정된 조화미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3-3은 스트라이프 문양과 양식화된 호랑이 문양의 조화로 변화감을 나타낸 것이다. 기린, 얼룩말, 표범, 호랑이, 물고기 문양 외에도 3-4와 같이 새를 양식화 하여 원피스 전면은 물론 스타킹에까지 나타내기도 하고,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캐릭터로 표현된 동물모티브들을 프린트

Table 3. Utilization of mode patterns



3-1. Blumarine, 2009F/W



3-2. Christian Dior, 2008S/S



3-3. Vivienne Westwood, 2001F/W



3-4. Just Cavalli, 2008F/W



3-5. Prada, 2005S/S



3-6. Alexander McQueen, 2008F/W

(all at www.style.com)

Table 4.
Utilization of abstraction patterns

| | | |
|---|---|---|
|  |  |  |
| 4-1. Basso & Brooke, 2010F/W | 4-2. Proenza Schouler, 2010S/S | 4-3. Versace, 2001F/W |

(all at www.style.com)

하여 동물적 모티브를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프린트 외에도 3-5와 같이 앵무새의 형태를 원피스 위에 패치워크하거나, 3-6과 같이 공작 모티브의 레이스를 콜라주하고, 또 화려한 비즈 장식을 통해 장식적인 강조효과와 시선을 주목시키는 유인자극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추상형은 사물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구체적인 사물의 무늬를 구성요소로 하지 않고 점, 선, 면, 곡선, 색채 등을 자유롭게 결합하여 만든 문양으로 상상력에 의해 디자인된 것이다(S-Y. Kim, 2010). 동물 문양의 추상적인 표현은 Table 4의 4-1과 같이 형태를 변형시켜 기하학적인 선, 면으로 나타내거나, 붓의 터치 등으로 이미지만을 전달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였고, 4-2와 같이 동물문양의 이미지만을 남긴 채 형태의 생략과 변형, 전환을 통해 기하학적이면서도 추상적인 이미지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또 4-3과 같이 동물문양의 패턴은 추상적인 형태로 변화되어 꽃의 형상과 같은 이미지

로 전환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문양으로 표현된 동물적 모티브는 하나의 의복 아이템 안에서 단일 동물의 문양으로만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으나, 서로 다른 동물 문양과의 혼성적인 표현을 통해 동물적 모티브를 더욱 강조시키기도 하였고, 동물문양과 기하학적 문양, 꽃문양, 추상문양 등과의 혼성적인 표현을 통해 동물적 모티브에 대한 이미지 대신 화려하고 장식적인 문양으로서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3) 패션소품 및 기타로 활용한 경우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오늘날 패션은 의상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장신구 등 인간 신체 전반에 행해지는 모든 장식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형성하는 토틸 패션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자극을 통해 새로움을 추구하는 현대패션에 있어 독특한 동물적 모티브를 활용하여 장식적인 소품이나 액세서리로 나타난 개성 있는 표현은 연출된 패션의 전체이미지를 결정짓기도 하고, 착용자의 개성과 취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Table 5의 5-1과 같이 박제된 것과 같은 동물의 형태를 그대로 부각시켜 솔을 두른 것처럼 연출하거나, 동물의 머리 형상을 그대로 이용하여 모자로 활용하였으며, 또 5-2와 같이 새의 깃털로 이루어진 전면 마스크 겸 헤드 장식으로 인간과 조류의 혼성된 이미지를, 5-3과 같이 사슴뿔을 활용한 헤드 장식으로 사슴과 혼성된 반인반수의 이미지를 나타내 유희적이면서도 그로테스크한 신체 이미지를 나타냈다. 이러한 표현은 인간심리의 내면세계와 동물적인 외형의 모습을 혼합하여 인간 정체성의 혼돈을 야기하게 되는데, 이는 진정한 인간 존재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상징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Table 5.
Used as fashion ornament and others

| | | | | | | |
|---|---|---|---|---|--|---|
|  |  |  |  |  |  |  |
| 5-1. Jean Paul Gaultier, 2010F/W | 5-2. Gareth Pugh, 2010S/S | 5-3. Victor & Rolf, 2004F/W | 5-4. Franck Sorbier, 2005F/W | 5-5. Seredin & Vasiliev, 2002S/S | 5-6. Marjan Pejoski, 2001S/S | 5-7. Castelbajac, 2007F/W |

(all at www.style.com)

이러한 이미지는 고대신화나 전설 속에 등장하는 동물을 이용한 마스크나 장식소품, 5-4와 같이 새의 깃털을 활용한 날개연출, 깃털과 같은 동물적 소재를 오브제로 이용한 메이 크업뿐만 아니라 5-5와 같이 동물문양을 얼굴전체에 페인팅 하는 등 동물적 모티브를 다양한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함으로써 표현되기도 하였다. 특히 패션 컬렉션의 무대에 실제 동물을 배치시켜 컬렉션의 테마를 부각시키는 무대소품의 하나로 배치시키거나, 모델이 실제동물과 같이 등장하는 등 연출적인 측면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또 핸드백이나 신발 등에 동물의 털이나 가죽, 깃털 등으로 장식하여 활용하기도 하지만,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동물 캐릭터의 형태를 의복아이템의 형태구성에 그대로 활용하여 유희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5-6은 빅스 바니 캐릭터를 가슴의 탑으로 활용한 것이고, 5-7은 아기 코끼리 덩보를 연상시키는 원피스로 유틸리티 있는 이미지를 나타내는 등 재미있고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느끼게 하였다.

이상과 같이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물적 모티브의 외적표현은 동물의 가죽이나 깃털을 의복이나 각종 소품의 소재로 활용하거나, 텍스타일 디자인에 있어 하나의 모티브나 문양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재적인 측면이나 문양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하여 가장 다양한 활용을 나타내고 있는 동물 모티브는 표범, 호랑이와 같은 맹수의 이미지가 241(58.3%)로 가장 많았고, 각종 조류의 깃털이나 이미지를 활용한 것이 61(14.8%), 얼룩말의 모티브가 45(10.9%), 파충류의 표피이미지가 33(8.0%), 동물을 활용한 캐릭터 모티브가 11(2.7%), 코끼리, 사슴, 강아지, 말과 같은 동물모티브가 7(1.7%), 기린의 표피 모티브 6(1.4%), 동물적 모티브의 추상적 표현으로 특정 동물의 모티브를 인지할 수 없는 것이 5(1.2%), 어류 모티브가 4(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맹수, 조류, 얼룩말, 파충류의 모티브가 소재나 문양으로 활용됨에 있어 다른 모티브에 비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또 이러한 동물의 상징적 특성을 통해 강렬한 이미지의 표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출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특정 동물 이외의 다양한 동물모티브의 활용 및 동물모티브를 기반으로 한 추상적 표현의 문양 개발을 통해 보다 다채로운 패션의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물적 모티브의 내적가치

이상의 고찰을 통해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물적 모티브는 소재나 문양으로 활용되어 표현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액세서리나 장식적인 소품으로 활용되어 패션 컬렉션 전체의 테마를 부각시키기도 하고 디자이너 특유의 유틸리티 있는 감각을 나타내는 등 패션의 이미지를 풍부하게 나타내는 수단이며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물적 모티브의 다양한 표현 안에 내재된 가치는 첫째, 자연미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동물적 모티브는 광활한 대자연의 생명력 넘치는 역동적 이미지를 느끼게 하는데, 동물 소재의 직접적 사용뿐만 아니라 프린팅에 의한 평면적 표현, 잘라진 가죽의 형태 그대로를 살려 디자인하는 등 동물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은 원시자연의 미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가공기술이나 염색, 소재의 표현기법 등에 의해 진짜보다 더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들로 자연적인 이미지를 강조시켰으며, 양식화 되거나 추상적인 표현 역시 모던한 감각과 함께 신비로운 자연미를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동물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동물의 문양과 재질, 색상이 주는 변화와 조화의 미가 바탕이 되어 패션디자인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이는 자연으로 되돌아 가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회귀본능이며, 또 생태학적 관점에서 자연과 생명에 대한 존재가치 등 인식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반면 Deleuze가 인간이란 지각된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생성되는 것을 사유하는 하나의 방법은 동물 되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Colebrook, 2004) 하였듯이, 첨단 물질문명 속에서 점점 나약해져가는 인간의 모습을 동물과 접목시킴으로서 과거 동물이 상징하던 초자연적 숭배의 대상과 동일시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내적 욕망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관능적 여성미의 표현이다. 여성성이란 여성의 섬세한 감수성, 부드러움, 온화함 같은 여성적인 미적 특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여성성을 바탕으로 느끼게 되는 관능미는 여성의 성적 매력을 부각시킴으로서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성복에 있어 인체의 노출이나 인체의 곡선을 드러내는 형태 또는 색상이나 소재의 강렬한 이미지를 통해 관능적 여성미를 표현하게 된다. 동물 소재가 갖는 자연 본연의 색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염색에 따라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하게 되고, 긴 털이나 동물 특유의 문양, 동물적이고 원시적인 촉감들은 단순한 생물학적 욕구 이상의 것으로 여성의 인체를 관능적 이미지로 전환되어 나타나게 하였다(S-Y. Kim, 2009). 또 모피와 가죽, 비치는 소재 등 소재간의 복합적이고 혼성적인 사용, 동물적 모티브를 부각시키는 문양과 몸에 피트 되는 실루엣 등은 여성의 인체를 강조시킴과 동시에 육감적인 동물의 이미지를 연상시킴으로써 관능미를 강조시켰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있어 여성의 인체는 하나의 주체적인 성적 존재로 이성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도구로써가 아니라 동물적 모티브를 통해 동물이 가진 강한 힘과 거대함, 신비로운 능력을 의복에 이입시키고, 여성의 성적 상징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개성표현이

나 자신감의 표현수단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유희적 이미지의 표현이다. Platon과 Aristoteles가 유희란 감각적이며 동물적 불안정성의 자연적 표현이라 했듯이 진지하지 않으며 오락과 카타르시스의 기능을 갖는 유희는 현실에서 도망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며,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의미가 아닌 그 자체로 즐거운 것이다(Ha, 1994).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물적 모티브의 유희적 특성은 대자연 속 수많은 동물의 모티브를 이용하여 사실적인 형상의 프린트나 하나의 오브제로써 의복에 부가적인 장식소품으로 활용하여 표현된 경우, 또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에 나타난 동물 모티브를 활용한 경우 등을 통해 심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반면 유희의 감정은 일상규칙의 위반, 이질적 요소의 도입, 강조, 변형, 모순, 부조화의 방식을 통해 보는 이에게 놀라움과 웃음을 나타내게 하기도 한다. 고대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격화된 동물의 모티브를 이용한 장신구나 장식적인 디테일, 얼굴전면이나 신체에 페인팅 된 동물 문양, 동물이미지와 혼성된 반인 반수의 표현 등은 그로테스크한 유희의 특성을 나타냈다. 충격과 의외성을 유발하는 이러한 유희의 표현은 동물 모티브를 하나의 수단으로 하여 웃음 안에 인간과 현대사회의 모순, 부조리 등을 지적하고, 물질문명 속에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인간 존재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장식적 이미지의 표현이다. 장식은 인간 표현 본능의 하나로 인간 자신과 생활공간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주술과 액운을 막기 위한 기원의 의미도 포함(Kwak et

al., 1994)됨과 동시에, 한 개인의 자아나 미적취향, 신분 표시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장식의 효과는 현대패션에서 자신만의 개성적인 미적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또 독창적인 디자인 연출을 나타낼 수 있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물적 모티브는 다양한 동물의 종류가 나타내는 각각의 특성으로 인해 그 자체만으로도 화려한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특히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적 모티브를 한 아이템에 사용해 단조로움을 피하고, 모피, 가죽, 깃털 등 동물 소재와 다른 이질적인 소재와의 혼합, 문양의 혼합 등을 통해 장식효과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감을 나타냈다. 텍스타일 디자인의 문양으로 활용된 경우 사실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양식화, 추상화된 동물문양의 형태로 나타나 각각의 모티브를 강조시킴과 동시에 하나의 문양으로써 장식적인 표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실제 동물소재의 색상이나 재질감을 그대로 살린 것뿐만 아니라 염색이나 가공기법에 의해 화려한 컬러감과 독특한 재질감을 나타내 동물이 이미지가 아닌 장식적인 효과를 부각시켰다. 또 프린트, 콜라주, 비즈 장식, 자수 등 다양한 표현기법 역시 동물적 모티브를 더욱 강조시킴과 동시에 수공예적인 장식미의 표현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문양과 소재, 기법을 통해 표현된 동물적 모티브들은 보다 독창적인 패션의 이미지를 연출하는 하나의 장식수단이 되고 있으며, 또 개성적인 패션 연출을 원하는 현대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6과 같다.

Table 6. Characteristics of the animal motif found in modern fashion

| Category | Trend of expression of animal motif | Embedded value |
|-----------------------------|--|----------------|
| Material | · Direct use of leather, fur, and feather of real animal | Naturalness |
| | · Expressed in realistic material feel with artificial leather or fur | Sensuality |
| | · Expressed in transformed complex animal motif with process skill or various expression methods | Ornamentation |
| Pattern | · Stressed with an animal motif combined with different animal materials in one item of clothes, or expressed for sensual beauty combined with visible material or glossary material | Naturalness |
| | · Expressed in diverse patterns, such as reality, mode and abstraction | Sensuality |
| | · Printing is a generic expression, but patchwork, collage or bead ornament are also used. | Pleasure |
| Fashion ornament and others | · Expressed in the various forms for pattern: pattern in single animal, pattern in different animals, and pattern combined in both animal and other shape | Ornamentation |
| | · Applied the animal motif to accessory, handbag, shoe, hair ornament and makeup, in addition to clothing | Naturalness |
| | · Transformed the animal-characterized motif into part of clothing components for expression | Pleasure |
| | · Set the real animal to the stage for performance | Ornamentation |

IV. 결론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과거 주술적이고 토맹적인 상징적인 의미에서부터 예술과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이르기까지 밀접한 관계를 나타냈다. 동물적 모티브는 동물의 상징적 의미와 함께 오늘날 패션을 비롯하여 기업이나 도시, 국가이미지, 브랜드의 심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물적 모티브들의 표현경향과 그 안에 내재된 내적가치를 고찰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물적 모티브의 표현은 동물의 가죽이나 깃털을 소재로 활용한 경우, 텍스타일 디자인에 있어 하나의 모티브나 문양으로 활용한 경우, 헤드장식이나 액세서리, 메이크업 등 장식적인 소품에 활용한 경우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소재로 활용한 경우 실제 동물의 가죽, 털, 깃털 등의 직접적인 사용뿐만 아니라 인조가죽이나 모피로 사실적인 재질감을 표현하였으며, 가공기술이나 다양한 표현기법에 의해 전환되고 복합된 동물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또한 의복 아이템 내에서 서로 다른 동물 소재의 혼성적인 사용, 비치는 소재나 광택소재와의 혼성적인 사용으로 동물적 이면서도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냈다. 문양으로 활용한 경우 사실형, 양식형, 추상형 등의 양식을 통해 표현되었으며, 프린팅뿐만 아니라 패치워크, 콜라주, 비즈장식 등의 다양한 기법을 통해 나타났다. 문양의 구성 또한 단일동물의 모티브를 문양화한 것, 서로 다른 동물문양과의 복합적인 사용, 동물문양과 다른 문양과의 혼성적인 사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화려한 장식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또 의복 외에 액세서리, 핸드백, 신발, 헤어장식, 메이크업 등 장식적인 소품으로 활용되거나,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동물 캐릭터를 의복구성의 한 요소로 전환시켜 유희적이면서도 장식적인 이미지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물적 모티브의 표현 안에 내재된 가치는 첫째, 자연미의 표현이다. 다양한 소재와 문양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동물 모티브는 그 자체만으로도 원시 자연의미를 반영하였으며, 자연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현대인의 내적 욕망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첨단 물질문명 속에서 점점 약해져가는 인간의 모습을 동물과 접목시킴으로써 동물이 상징하던 초자연적이고 강력한 힘의 대상과 동일시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내적 욕망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관능적 여성미의 표현이다. 긴 털이나 동물 특유의 문양과 촉감들은 단순한 생물학적 욕구 이상의 것으로 여성의 인체를 관능적 이미지로 전환되어 나타나게 하였다. 또 동물적 모티브를 부각시키는 문양과 몸에 피트 되는 실루엣 등은 여성의 인체를 강조시킴

과 동시에 육감적인 동물의 이미지를 연상시킴으로써 관능미를 강조시켰다. 셋째, 유희적 이미지의 표현이다. 동물의 사실적인 형상을 프린트하거나 하나의 오브제로써 의복에 장식소품으로 활용한 경우,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에 나타난 동물 모티브를 활용하여 인체를 동물 캐릭터와 동일시시킨 경우 심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유희의 감정을 느끼게 하였다. 반면 동물이미지와 혼성된 반인반수의 표현을 통해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로 충격적인 유희의 감정을 느끼게 하기도 하는데, 이는 물질문명 속에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인간 존재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장식적 이미지의 표현이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물적 모티브는 다양한 동물의 종류가 나타내는 각각의 특성으로 인해 소재와 문양으로 사용된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화려한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또 액세서리나 장식소품으로 활용되어 동물적 모티브를 주제로 한 토털패션으로서 조화의미를 나타냈고, 다양한 표현기법을 통해 수공예적인 장식미의 표현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표현과 가치를 나타내는 동물적 모티브의 표현은 현대패션에 있어 보다 독창적이고 새로운 미적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며 돌파구라 할 수 있다. 또 동물적 모티브가 주는 특별한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움으로 큰 변화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독특한 개성연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이라 하겠다. 따라서 동물적 모티브뿐 아니라 다양한 자연적 모티브에 대한 넓은 시각과 창의적인 시도들로 보다 감각적이며 차별화된 패션디자인의 전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References

- Animal 1. (2011, September 15). *Daum encyclopedia*. <http://enc.daum.net>.
- Animal 2. (2011, September 15). *Daum language dictionary*. <http://krdic.daum.net>.
- Animal pattern. (2011, September 15). *Samsung design net*. <http://www.samsungdesign.net>.
- Animal prints and leather are in vogue in the fashion world. (2011, September 15). *Naver blog*. <http://blog.naver.com>.
- Cho, G-G. (1985). A study on animal pattern of textile in Chosun peri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Cho, J-H. (2009).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ype of

- textile designs by period in domestic apparel texti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Cho, M-S. (2009). A study on creating a new emblem for the unified Korea using an animal as motif: focusing on emblems for national football tea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Cho, Y-H. (2005). Philosophy of the arts. Seoul: Misulmunwha.
- Colebrook, C. (2004). *Gilles Deleuze*. (M-J, Baek, Trans.). Seoul: Taehak. (Original work published 2002)
- Ha, J-S. (1994). Playfulness in modern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s*, 22, 71-84.
- Jung, J-S. (1997). A development study on natural image pattern design: with focused on animal patter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R-H. (2009). Comparative analysis of symbolic animal pattern in Korea and India. *Journal of Communication Design*. 30, 55-66.
- Kim, S-Y. (2009). Characteristics of fur design in the contemporary fashion: mainly focused on works after the year 200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3(4), 563-573.
- Kim, S-Y. (2010).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floral images in contemporary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s*, 60(8), 1-14.
- Kim, S-W. (2007, December 1). The allure of fur. *Harper's Bazaar*, p. 128.
- Kim, T-Y. (2005). Research for symbolic aesthetic consciousness of animal: focusing on the animals related to the primitive relig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ukmin University, Seoul, Korea.
- Kim, W-K. (2010). A study of sportswear designs using the tiger motif found in folk paint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s*, 60(5), 128-138.
- Kwak, D-O., Kim, S-H., Kim, H-W., Baek, T-H., Lee, B-W., Jeon, Y-I., et al. (1994). Encyclopedia of design. Seoul: Sungryemun.
- Lee, G-H. (1986). Introduction to design. Seoul: Yurimmunwhasa.
- Lee, M-G. (2006). A study on the semiotic approach of logo in sportswear brand.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4(2), 1-15.
- Lee, Y-J. (2006). Comparative study on the symbol of animal pattern in the east and west costume.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5(3), 469-480.
- Lee, I-S. (2004). Study on the sensible expression of flowers in textile design: focused on flower coll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I-S. (2009). A study on the ceramic ornaments motivated by animal im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J-E. (2009). Development and investigation of conversational textile printing design in 2005-2009 colle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Shin, G-H. (2007, November 1). What a colorful fur. *Vogue Korea*, p. 202.
- Symbolism of animal folklore. (2011, September 15). *Korea national heritage online*. <http://www.heritage.go.kr>.
- Takashi, H. (2004). *European history by crest*. (J-H. Park, Trans.). Goyang: Dalgwaso. (Original work published 1998)

접 수 일 : 2012년 3월 13일
 심사시작일 : 2012년 5월 8일
 게재확정일 : 2012년 6월 23일